

연길, ‘진달래 여름’ 광장문화활동 개막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 일요일
저녁 7시에 공연

지난 6월 10일 저녁, 화려한 등불로 휘황찬란한 연길시 청년광장은 흥성흥성하며 인파로 북적였다. 연길시 당위와 정부에서 주최하고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한 “2024년 ‘진달래 여름’ 광장문화활동 - 즐거운 연길무대”가 멋들어진 드림 공연과 함께 정식으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연길시 문화예술류 과외훈련기구와 연변대학사범분원부속소학교 150여명의 청소년 문예애호가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선보이는 가야금병창〈영천아리랑〉, 무용〈물동이춤〉, 3인창〈은인〉, 현대무〈뉴 댄스〉등 13개의 다채로운 문예종목들은 현장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청소년들은 우아한 춤사위와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꿈과 희망을 노래했고 활력과 풍채가 흘러넘치는 연길의 예술문화 성과를 보여주었다.

연길시 대중문화 브랜드 활동중 하



▲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즐거운 연길무대’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드림 공연과 관객들

나인 ‘즐거운 연길무대’는 2012년에 시작된 이래 근년에는 ‘정품’ 만들기

관객들과의 상호 소통을 증가해 연길시의 문화관광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이는 연변 조선족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대중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힘있게 추진하였으며 조화롭고 건강하며 문명한 도시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연길의

지명도와 평가도를 높이는 데 조력하였다.

9월 3일까지 지속되는 “2024년 ‘진달래 여름’ 광장문화활동 - 즐거운 연길무대” 공연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의 저녁 7시에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관객들과 대면하게 된다.

/ 김파기자 / 사진 김홍식

김화, 료녕성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으로



▲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김명환 김화 부녀의 공연 무대

일전 료녕성 환인만족자치현문화관광발전센터(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농악무(걸립무) 전승보호 담당회를 소집했다. 간담회에서 김화에게 료녕성문화관광청에서 발급한 제 4

진 료녕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증서를 전달했다.

료녕성 환인지역에서 100여년간 전승되어 내려온 조선족농악무(걸립무)는 2006년에 제 1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목에 등재되었다. 근년

간 제 4대 전승인 김명환(1948년생)은 공연팀을 이끌고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의 각종 시합과 공연에 참가해 수많은 영예를 획득했다. 김명환 본인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중화무형문화유산전승인 신전상(薪传奖)을 획득했다.

김명환은 올해 76세의 고령이지만 지금껏 단 한번도 무대에 결석한 적이 없고 딸 김화를 제 5대 전승인으로 양성하는 데 진력했다. 김화(1976생)는 지난해에 료녕성문화관광청 전문가들의 고찰 검수를 통과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농악무(걸립무)의 성급 대표성 전승인으로 인정받았다.

김화는 7살 때부터 걸립무의 쌍춤 공연에 참가하였다. 2000년 대학 졸업후 환인만족자치현직업교육센터 중등전문학부 교사로 배치받았고 곧 이어 걸립무 정식 배우로 되었다.

2009년 걸립무 주역으로 발탁된

김화는 아버지를 도와 걸립무 무용 지도를 담당했으며 공연 경험을 총화하면서 아동 삼모춤과 물동이춤을 추가해 걸립무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했다.

최근년간 조선족의 해외로무, 도시 진출로 인해 배우 모집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김화는 학교 수업에 영향 주지 않는 기초에서 현재의 과외 무용 양성반을 방문하며 타민족 배우를 모집했고 휴일과 저녁시간을 리용하여 배우 양성에 전력했다. 김화의 노력으로 현재 걸립무 무용팀은 고정 배우 44명, 기동 배우 24명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공연 진행을 차질없이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매일 함께 걸립무를 연구하고 있는 김명환, 김화 부녀는 해마다 성, 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에 참가하며 무형문화재 사회구역, 학교 진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료녕신문

동굴 · 고전물 · 농장, 이색적인 카페문화 ...

운남성의 커피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현지 커피 종사자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택, 농장, 고전물, 옥상 등에 위치한 카페가 특히 호기심 많은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 동굴카페 ●

수천만년전에 형성된 고대의 동굴에서 향긋한 커피 한잔 즐기는 맛과 멋이란? 운남의 한 카페에서 커피 애호가들에게 제공하는 독특하고 있을 수 없는 경험이다.

부민현에 위치한 보석동굴관광지의 동굴 속 카페,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장식된 종유석 밑 공간은 샘물이 솟는 소리로 차넘친다. 카페는 수백미터 깊이의 천연 동굴에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카페는 방문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인기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보석동굴관광지 사장 장건은 이 카페가 지난해 10월에 오픈하자마자 여러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연속 입소문을 탔다고 했다.

장사장에 따르면 이 특이하고 운치 있는 장소를 탐방하기 위해 수많은



▲ 운남성 부민현에 위치한 동굴카페

은 방문객들이 찾아온다. 특히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에 300잔 이상의 커피가 판매되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3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이 매력적이고 독특한 카페를 방문했다. 장사장은 “앞으로 이 거대한 동굴에서 콘서트와 바리스타 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커피농장 ●

푸얼시에서는 웅장한 산의 전망을 자랑하는 커피농장이 특히 인기가 있다.

커피 재배 구역, 로스팅 구역 및 기타 시설은 약 20헥타르에 걸쳐 얹혀있다. 60원의 입장권으로 방문객은 9종의 커피를 접할 수 있고 원두 수확부터 로스팅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하복성에서 온 관광객 서염은 지난 주말 푸얼시에 있는 커피농장까지 2,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다. 그는 전망대에서 바리스타가 갓 내린 커피를 맛보며 몽게몽게 떠다니는 흰 구름과 구불구불 먼먼히 펼쳐진 산의 풍경을 감상했다. 그는 “산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독특한

경험”이라며 “커피 맛도 훌륭하다.”고 전했다.

● 커피와 역사 융합 ●

커피농장뿐 아니라 운남성은 커피를 역사와 융합하며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푸얼시 대가항가두는 과거 청나라 시대 교역의 요충지였다. 젊은 사업가 양범은 이곳에서 100년 된 건물을 개조해 엔틱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고풍스러운 카페 곳곳에는 오래된 나무 들보와 돌 벤치, 복고풍 소품들이 가득차 있어 마치 중국 전통 차집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고대 주거지는 이제 고급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로 개조돼 음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일반 카페에 비해 이렇게 고풍스럽고 추억이 많은 장소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말을 리용해 푸얼시에 놀러 왔다는 한 관광객의 말이다. 이 관광객은 이러한 경험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몰입감 있고 향기로운 커피 여행을 위해 독특한 카페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 신화넷

■ 박물관 신책 ■

‘얼빈’을 알고 싶다면 할빈시박물관으로

문화가 한 도시의 령혼이라면 박물관은 도시의 령혼을 엿볼 수 있는 창이다. 박물관 클러스트(集群)라 할 수 있는 할빈시박물관은 도시력사, 홍색문화, 음악민속 등 15개 테마의 전시관을 갖고 있다.

1919년에 건설을 시작한 할빈시 중-소우의협회 옛터 기념관은 100여년래 선후로 8개 기관과 부문이 이곳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할빈이 공화국의 만이로서 새 중국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했던 과정을 지켜보아왔다. 전시정에는 문자, 사진, 영상, 사무용 가구 등이 할빈 해방전후의 상전벽해의 큰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할빈의 도시문화에는 줄곧 서방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유럽의 진귀한 문물과 예술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면 할빈박물관을 방문하길 바란다. 유럽 동판화 소장관에는 한쪽

한쪽 정교하게 복원한 수백쪽의 유럽 동판화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 동판화 소장관 관장 류한영에 따르면 소장관은 3,000여쪽의 동판화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 240여쪽만 전시하고 있다. 소장관의 모든 유럽 동판화는 모두 경매를 통해 소장한 것으로 대부분은 유럽으로부터, 일부는 로씨야로부터 구입해 들인 것이다.

올해 년초부터 4월까지 할빈시 박물관은 려객객 연인원 28만명을 맞이했다. 앞으로 박물관은 방설의 선물-중국 할빈 ‘동계아시아게임·과학·문명’을 주제로 한 전시정을 설치하고 미육연합 교실, 무형문화유산 체험 등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외 문화 창의 체험중심을 계획하고 있는 중으로 더욱 많은 문화 창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 동북넷



‘박물관 열풍’... 전통문화 탐구에 날로 관심

“민족의 얼과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박물관, 예전에는 로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력사를 탐구하려는 젊은이들 늘어나는 추세”

박물관에 가서 공부하기, 한복(汉服) 입고 인증샷 찍기, ‘고고학 랜덤박스’ 구입하기... 최근 수년간 ‘박물관 열풍’이 불면서 각지의 박물관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전통문화 탐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북성 형수(衡水)박물관에 들어서면 치수에 성공한 우임금, 중국 고대 전설 속의 보물인 구주정(九州鼎)이 3D로 재현되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 고대 도시 기주(冀州)의 천년 력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형수박물관 관장 두상립은 “박물관은 민족의 얼과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며 예전에는 로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력사를 탐구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내 각지 박물관들에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참관하는 모습을 푸술히 볼 수 있다. 진지하게 전시품을 관찰하고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기도 하며 력사교과서를 들고 전시품과 비교해보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유물과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한다. 몰입식 연구 체험은 청소년들의 문화 탐구 열정을 끊임없이 고취시키고 있다.

두관장은 형수박물관에서는 중소학교들과 함께 매년 100여개의 연합활동을 개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박물관들은 창의적인 시도와 특색 있는 행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얼마전 하북성 량방박물관을 찾은 대학생 자우둥은 한정판 퍼즐 스탬프 카드 세트를 샀다. 자우둥이 구매한 카드엔 공란이 있다. 박물관을 참관하며 상나라에서 송나라까지 각



▲ 하북성 량방박물관의 한정판 퍼즐 스탬프 카드

각 다른 8개의 ‘똥’자, 퉁무늬가 있는 1개의 문화재 인장 등 9개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화 문명은 유구하며 광범위하고 심오합니다. 각각 다른 시기 력사에 포함된 문화 유전자를 다시 되새길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우둥은 박물관에서 ‘똥’자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문화적 자신감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문화 체험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만큼 문화 창의 제품 판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박물관은 전통문화와 현대 생활의 접점을 찾아 문화 창의 제품을 활용해 관객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승덕퍼서산장그룹 회장 리사천에 따르면 승덕시 관광 상품 공용 브랜드 온라인몰인 ‘승덕선물’에는 40개 시리즈에 2,000개에 가까운 문화 창의 상품이 있다. 그중 많은 상품이 고고학이나 력사·문화를 주제로 제작됐으며 지난해 매출은 1,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북사범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왕명호는 최근 수년간 전통문화 전파가 력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력사·문화적 요소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 잘 결합된 문화 관광산업에 ‘신국조(新国潮)’ 열풍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화넷